

식음료 패키징 솔루션 지향 PET 음료 제품 가치 제고



허민

(주)삼양사 용기BU장

(주)삼양사는 AM, 식품, 의약, 산업자재, 용기, 사료, 무역, 환경사업 등의 8개의 BU(Business Unit)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에 있는 해외공장과의 지점을 통해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양사는 2004년 화학, 식품, 의약 부문을 핵심 성장 사업군으로 선정하고 비전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중 유리 및 알루미늄 캔, 각종 플라스틱의 대체 용기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PET병은 삼양사 화학 부문의 대표 제품이다. 삼양사는 1986년 PET병 사업을 시작, 용기BU(BU장 허민 상무)로 체제를 갖추고 대전과 평창의 2개 공장에서 자동화된 12개 라인에서 각종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삼양사 용기BU가 생산하는 PET용기는 안전성, 가스 차단성, 경량성, 투명성이 우수해 국내 시



▲ (주)삼양사 용기BU가 생산판매하는 PET용기

장은 물론 일본 등 수출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삼양사 용기BU는 과즙음료를 위한 내열병, 탄산음료를 담기 위해 특수구조를 갖고 있는 내압병, 생수와 소주 등을 담는 상압병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해 새로운 디자인 개발과 신기술, 신소재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어 우수한 PET Resin을 가지고 내구력, 내열성, 투명성, 재생성이 뛰어난 식음료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식품, 제과, 주류 등 비음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하고 차별화 전략을 통한 공급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PET업계 선두 기업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삼양사 용기BU는 그동안 PET CAN, 손잡이 일체형 대용량 PET 보틀 등을 선보이며 PET 음료 제품의 가치를 제고시켰다.

삼양사 용기BU가 개발한 PET CAN은 일반적인 캔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몸통부분은 PET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음료용 용기이다. 기존에도 PET CAN이 있었지만 스포츠 용품이나 분말제품 등에 사용되었으며 음료를 담는 제품으로는 개발되지 못했다.

삼양사의 PET CAN은 국

내에서 처음으로 음료용 용기로 개발되어 한국야쿠르트의 Hi-Fresh C.C.에 적용되었다. PET CAN은 투명한 외관을 통해 내용물을 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감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형상의 용기 제작이 가능해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

PET CAN의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PET 재질의 바디 플렌지의 두께와 넓이를 최적화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의 탄력으로 인한 실링 효과로 시밍을 할 때 컴파운드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금속CAN과 유사한 치수를 통해 별도의 개선 없이도 기존 음료 생산라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바디부분의 PET와 엔드부분의 금속의 분리가 용이해 재활용하기 편리하다. 이 제품은 2006 10대 우수포장에 선정되었고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삼양사 용기BU가 개발한 PET 보틀을 사용한 매일유업의 '맛있는 비타우유'는 투명 PET 보틀을 통해 유리병의 이미지를 전한



▲ (주)삼양사 용기BU의 생산설비인 Palletizer

SAMYANG PET Bottle

제품으로 변화되는 소비자의 기호에 새로운 우유 패키지를 보여줌으로써 히트를 쳤다. 이 제품은 PET 재질이 지니고 있는 투명성을 잘 살리면서도 가볍고 깨지지 않는다는 PET의 장점도 함께 갖추었으며 PET 보틀의 바닥면에도 예전 유리병의 형상을 그대로 살렸다.

손잡이 일체형 대용량 PET 보틀은 용기 자체에 손잡이가 성형된 것이 큰 특징으로 세

계에서 최초로 개발됐다.

이 용기는 앞으로 소주, 간장, 식용유, 올리브유 등에 적용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높은 투명성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출 계획이다.

삼양사 용기BU는 새로운 기술 개발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그에 맞는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는 삼양사 용기BU는 PET용기 전문 디자인 회사와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이루며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음료시장은 다양한 용기 디자인을 통해 음료 특징을 나타내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어필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PET용기 업체의 핵심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음료업계에 히트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리뉴얼 마케팅이 주가를 올리면서 기



▲ (주)삼양사 용기BU의 Blower



▲ (주)삼양사 용기BU의 Labeller

존 히트상품에 용기 패키지를 바꿔 다시 출시하는 리뉴얼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리뉴얼 상품이 주목받는 것은 히트상품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소비자에게 손쉽게 어필할 수 있는 등 저비용·고효율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최근 음료업계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삼양사 용기BU는 롯데칠성음료 '스카시 주스'의 패키지 용기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바꾸어 리뉴얼했다.

리뉴얼한 용기의 디자인은 신선한 과일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게 특징이다. 원형 PET

는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패키지 상단에 껍질을 반만 벗겨낸 과일을 형상화했다. 사각 PET의 경우엔 용기 상단부에 싱싱한 과일나무 잎을 배치시켜 갓 짜내기 직전의 신선하고 상큼한 과일 맛을 연상케 했다.

삼양사 용기BU는 음료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게끔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발 빠르게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삼양사 용기BU는 PET병 생산업체로 경기도 시화공단에 연간 처리능력 12,000톤(PET병 2억5천개)의 대규모 재활용

공장을 건설해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불순물 함유율이 낮고 물성이 우수한 재생 PET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PET병의 생산 및 유통, 폐PET병 재활용의 완벽한 사이클을 갖추며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국내 PET병 재활용 산업도 선도하고 있다.

식음료 패키징 솔루션을 지향하며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는 삼양사 용기BU. 초우량 글로벌 기업인 삼양사의 대표 우수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선두 기업 자리를 지켜 나갈 것이다. ☐

이한얼 기자